

광주시 · 전남도-청와대 지역현안 교감



이용섭 광주시장이 20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지역현안 청취 면담을 나눈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소열 청와대 차기부수관, 이용섭 광주시장,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이용섭 광주시장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일 2019 세계수영대회와 광주세계수영대회에 광주시장과 한병도 정무수석이 차지분권서관, 이용섭 광주시장,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광주시는 이날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나소열 차기부수관, 나소열 차기부수관,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청와대 정무수석 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는 ▲광주시 일자리 사업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수원대회 ▲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정은 “광주수영대회의 경우 내년 국내에서 치러지는 유일한 국제규모 대회이고 남북 평화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수 있는 상징성이 있는 대회인 만큼 총 사업비 변경과 국비 추가 지원, 북한 선수·응원단 참가 등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 김영록, 한병도 정무수석 정책간담회

“文정부 제1 국정과제, 지역 일자리 창출 노력”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운영체계 효율화를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내 지역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광주시 문화관련 공직자를 포함시켜줄 것을 제안했다.

광주·군·공항 이전사업도 광주·전남 상생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업이라며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국가 지원 확대, 이전 지역에 대한 정부차원 국책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도를 봉행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협약 간담회를 갖고 에코생태식물공원 조성, 지방분권 강화 등 10건의 지역 현안사업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이 곧 국가 발전으로 이어진다”며 민선7기 주요 현안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도정목표인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가 조속히 달성되도록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국가 차원의 체계적 기후변화 대응과 우수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생태관광 수요 창출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

지 및 에코생태식물공원’을 국가사업으로 선정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또 민선7기 핵심 시책인 에너지 관련 기업 1천개 유치를 위해 빛가람 에너지밸리 권역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차세대 ESS산업 생태계 구축 ▲한전공대 설립 ▲남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남해안 철도(목포~보성) 조기 건설 및 전철화 ▲여수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및 국제 회의도시 지정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기반 구축 ▲스마트 시티 국가시범도시 2단계 사업 추진 등을 건의했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현장에서 지역민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제1 국정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민족 지방 일자리문제나 재정분권의 질질적 내용 등을 파악해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김정환 기자

광주시, 일자리 조례 중복 상정 논란

‘더나은 일자리 조례’ 놔둔 채 ‘일자리 조례’ 강행… “협치·소통 부족”

광주시가 일자리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 2년 만에 또다시 빙바이 조례’를 상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제8 대의회 첫 임시회에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 지난 20일 일부 문구만 바꾼 채 상임위에서 수정의결됐다.

그러나 이 조례는 지난 2016년 7 월 제정돼 지난해 6월과 올해 4월 일부 개정된 ‘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매우 흡사해 중복 조례 논란을 낳고 있다.

설치 목적과 기능, 위원수 구성, 임기와 해촉, 임무 모두 앞선 조례와 차이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빙바이 조례다.

단지, 앞선 조례는 민선6기 윤장현 시장이 역점 부서로 설치한 사회통합추진단이 추진한 것이고, 이번 조례는 민선7기 이용섭 신임 시

장이 국(局) 단위에서 실(室) 개념으로 격상시키며 말단 국에서 ‘톱3’ 부서로 무게 중심을 실어준 일자리 경제국 소관이다.

소관 상임위도 앞선 조례는 행정자치위원회, 이번 조례는 산업건설위원회다. 조례 상정 과정에서 집행부 부서 간, 집행부와의 의회 간 협치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점기(남구) 의원은 “유사 조례가 시행중인데도 중복된 조례를 굳이 상정하는 것은 보여주기 성과주의식 행정 아니냐. 모순이 있고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신설될 일자리위는 기존 더나은 일자리위에 비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더나은 일자리위는 한 분과나 특별위 개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은홍 기자

전남도의회, 감염병 위기 상황 조례 개정

오하근 의원, 첫 의원발의 “감염병 클린 전남 실현 기대”

전남도의회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오하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전라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전면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전남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을 5년 단위에서 매년 시행하도록 수립 주기를 단축했다.

또, 도내에서 감염병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예방 관리를 담당하는 전라남도 감염병관리 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도지사 주관으로 예방 접종 실시주간을 운영함은 물론

예방교육이나 홍보, 민·관 의료 네트워크, 유공자 포상 조항 등을 신설해 감염병 예방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명시했다.

오하근 의원은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지자체에서도 국가 수준의 감염병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감염병 클린 전남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8일 보건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오는 26일 제32회 전라남도 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기자 모집합니다”

고흥 · 장성 · 장흥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화 : 062-224-5800

e-mail : iho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한정승인 공고

사건 번호 : 광주가정법원 2018느단 1102 상속한정승인
사망자 : 이지아 (740822-2550616)
최후주소 : 광주 북구 무등로180번길 12, 316호(신안동, 제일오피스텔)

위 망 이지아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재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8년 7월 23일

공고인 : 이건철, 이승자.
주소 : 광주 북구 무등로 180번길 12, 316호(신안동, 제일오피스텔)
한정승인수리일 : 2018년 7월 18일
공고기간 : 2018. 7. 23 ~ 2018. 9. 24

한정승인 공고

사건 번호 : 광주가정법원 2018느단 3249 상속한정승인
사망자 : 장광석 (660217-1654328)
최후주소 : 나주시 월정3길 25, 604동 1205호
(빛가람동, 빛가람나6단지아파트)

위 망 장광석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재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8년 7월 23일

공고인 : 장재원, 장종화.
주소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5길 16, 210호(석촌호수)
한정승인수리일 : 2018년 7월 19일
공고기간 : 2018. 7. 23 ~ 2018. 9. 24

동구 총장동, 이웃과 함께 녹색마을 만들기

광주 동구 총장동이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웃과 함께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역사회에 친환경비빔을 불러일으키며 진전화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총장동주민자치위원회’와 ‘조우공동체’가 주도하는 이번 사업은 ‘생활 속의 자연 순환’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농업’을 목표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총장포럼’ ▲쓰레기 줍기 대회 ▲환경 캠페인 ▲온실텃밭 가꾸기 등을 펼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총장동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총장동 상인·번영회장, 마을공동체 활동가,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장포럼이 열렸다.

서구, 한비야 국제구호전문가 초청 아카데미

광주 서구청이 국제구호전문가이자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장인 ‘한비야’ 강연자를 초청, 서구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를 운영중인 서구가 88회째 구민 아카데미를 맞아 당신에게 보내는 1그램의 용기’라는 주제로 공개강좌를 열기로 한 것.

24일(화)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서구청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서구 아카데미에는 한비야 강연자가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이번 아카데미에서 한비야 강연자는 끊임없는 도전에서 얻은 용기를 어떻게 삶의 실천으로 변화시켜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남구,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우수기관 선정

광주 남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20일 남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재난상황 발생시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남구는 다중이용시설인 대형병원 인근에서 지진 발생으로 인한 화재 등 복합 재난상황을 가상으로 하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군부대와 경찰, 소방서, 병원,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 25곳과 민간단체 10곳 등 총 800명 가량이 참여한 가운데 실전을 방불케하는 대규모 학동훈련을 실시, 긴급 대피 및 부상자와 이재민 조치 등 재난 상황별 대응을 완벽하게 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북구, 내일 경제 종합지원센터 개소

광주 북구는 오는 24일 지역 산업경제 활성화와 신용동 주민 민원편의를 위한 경제 종합지원센터 및 현장민원실을 개소,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경제 종합지원센터는 민선 7기 문인 구청장의 제1호 공약이다.

신용동에 들어서는 경제 종합지원센터는 첨단·본촌산단 등 기업현장 가까이에서 산업단지 구조조화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일자리 매칭, 기업구제 개선 등의 기업지원 업무를 전담한다.

또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선정된 본촌산단의 내실 있는 구조조화화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 청년 창업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눈높이에 맞는 개선방안을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광산구,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과 상생협력

19일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빛가람혁신도시 한전KDN 등 공공기관 4곳과 한국철도공사 광주송장역을 차례로 방문해 각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과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대해 듣고 지역지원 연계와 상생협력 관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사회공헌활동 장려에 따라 최근 지역 공공기관의 관련 활동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에 공감하고 지역현안 해결 등으로 그 과급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김 청장은 기관 임직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임형택 기자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 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